

위대한 디커플링: 역대급 실적과 시장 붕괴의 역설

2026년 7월 7일 글로벌 시장 브리핑 및 심층 분석

국내 증시 붕괴

KOSPI 7,485.68
(-7.03%) | KOSDAQ
821.05 (-3.07%)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약 6%)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美 증시의 회복력

DOW 52,900.07
(+0.97%) | NASDAQ
25,832.67 (+0.00%)

다우지수 53,000선 첫 돌파.
스페이스X 나스닥100 편입(41조원
유입 기대)으로 투심 방어.

거시경제의 혼조세

US 10Y 4.537% (+5bp)
WTI \$64.89 (+\$2.62)
| BTC \$103,000
(+\$1,240)

연준 매파 기조로 국채 금리 상승
속, 유로 강세로 달러 약세.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동반 상승.

패닉 셀링의 해부: 코스피 7,500선 붕괴

KOSPI: 7,485.68 ▼ 565.65pt (-7.03%)

KOSDAQ: 821.05 ▼ 26.02pt (-3.07%)

외국인 6% 대규모
매도 폭격 시작

반도체 투톱 주가 급락 견인

매도 사이드카(Sidecar) 발동

[BEARISH PRESSURE]

실적 호조가 지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극단적
투자 심리 위축 장세.

실적과 주가의 괴리: 거인들의 추락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삼성전자 2분기 호실적 발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초토화

삼성전자:	290,500원 (-8.65%)		시총 1698.3조
SK하이닉스:	2,143,000원 (-8.54%)		시총 1527.3조
LG에너지솔루션:	325,500원 (-8.18%)		시총 76.2조
현대차:	465,500원 (-7.27%)		시총 95.3조

상위 10개 종목 중 NAVER(-0.61%), 삼성바이오로직스(-1.00%) 제외 전 종목 2% 이상 급락.

섹터별 자금 이탈: 제조업의 붕괴와 방어주의 고립



수출 주도형 기술/제조 섹터에서 자본이 공격적으로 이탈 중이며, 내수 중심의 음식료품 등 극소수 방어주로만 매수세가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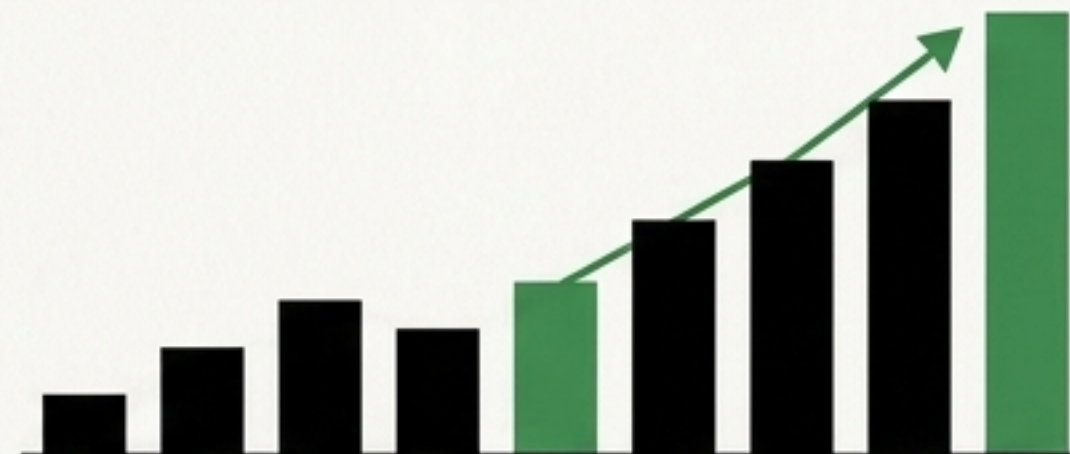
미 증시의 회복력: 다우 53K 돌파와 새로운 촉매제

Status Board

DOW JONES: 52,900.07 (+0.97%) [New Milestone Breakout]

S&P 500: 7,483.24 (Flat)

NASDAQ: 25,832.67 (Flat)



Sector Highlights

부동산 (+7.42%) 급등, 에너지 (+2.00%) 상승.

Card 1 (Left - Catalyst)

[BULLISH DRIVER: Liquidity Event]

스페이스X 나스닥 100 전격 편입 기대감. 최대 41조 원 유입 전망으로 투심 자극.

Card 2 (Right - War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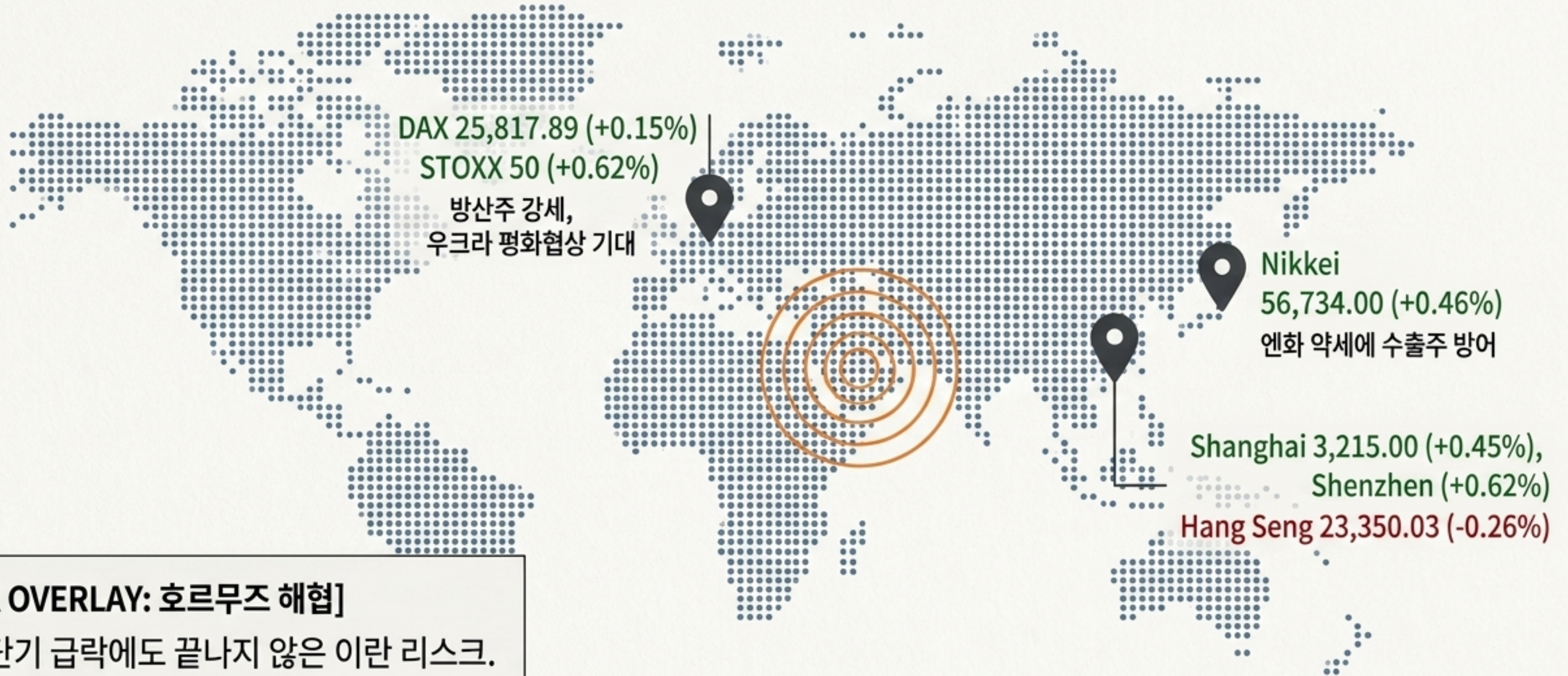
[BEARISH PRESSURE: Overvaluation]

모건스탠리 경고: "AI 호황에 커진 이익 거품, 반도체 조정 후 경기민감주로 매기 확산 위험."

태평양 횡단 기술주 디커플링 진단

Trans-Pacific Tech Divergence Matrix		
	 KOREA	 USA
핵심 촉매제 (Core Catalyst)	삼성전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	스페이스X 나스닥 편입 (41조원 유입 대기)
시장 반응 (Market Reaction)	KOSPI -7.03%, 반도체 투톱 -8%대 폭락	나스닥 보합 방어, 다우 53,000선 돌파
지배적 내러티브 (Narrative)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선반영 역풍)	AI 이익 확장 기대감 지속 및 유동성 기대
기관의 시각 (Inst. View)	외국인 6% 투매 엑소더스	모건스탠리: "AI 이익 거품 경계, 경기민감주 순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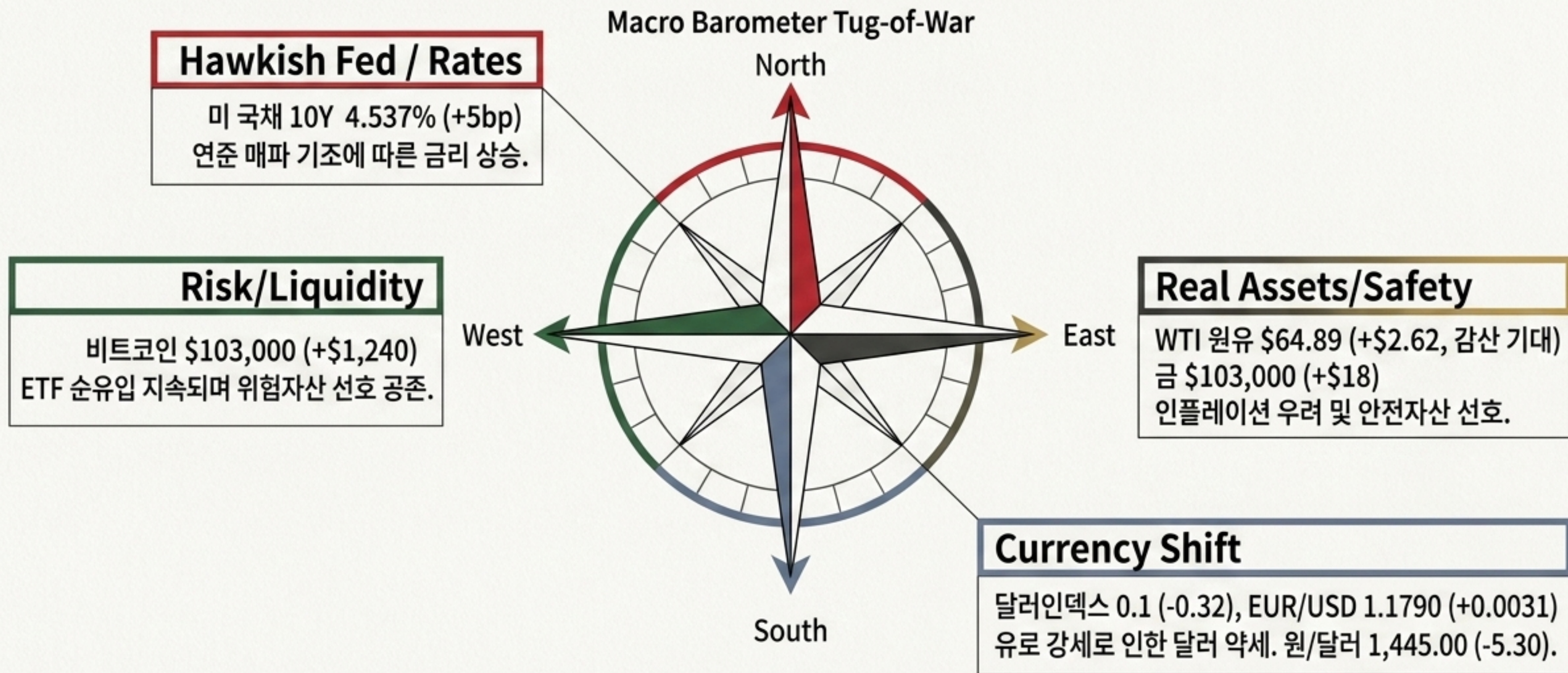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동향: 지정학적 리스크 속 선별적 강세



[RISK OVERLAY: 호르무즈 해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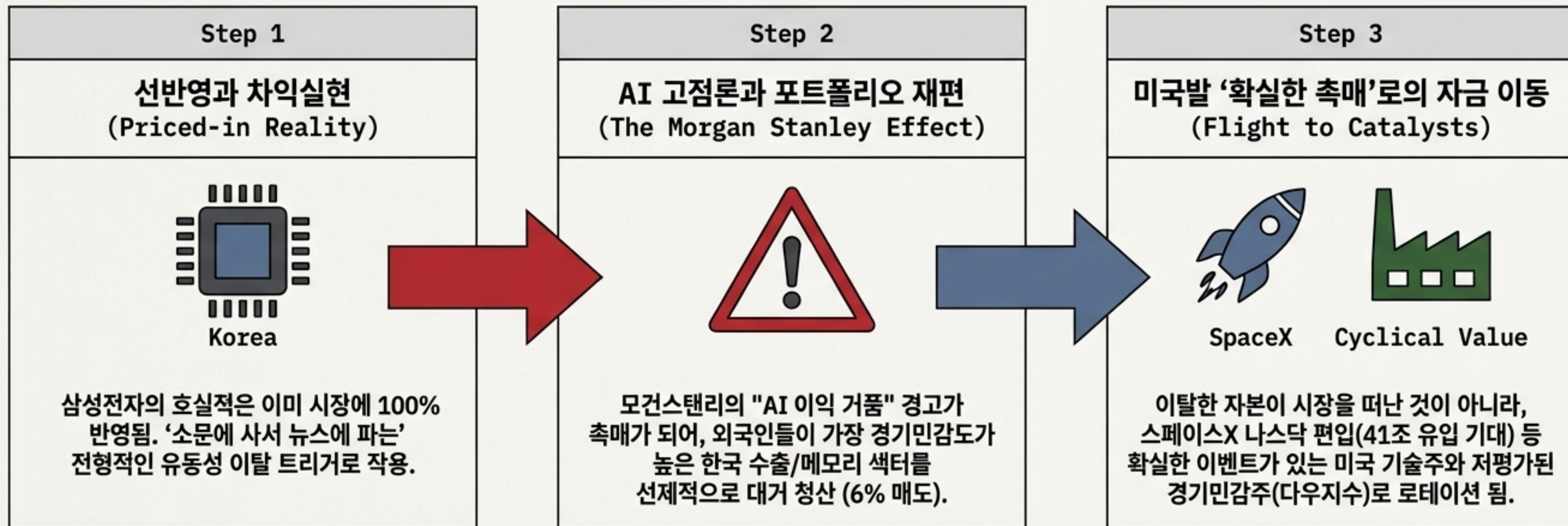
유가 단기 급락에도 끝나지 않은 이란 리스크.
하반기 증시 최대 변수로 부상.

FICC 시장 동향: 극심한 혼조세와 방향성 상실



Synthesis Note: 금리 상승(매파)과 비트코인/금 동반 상승이 겹치는 기형적 매크로 환경이 자산군 간 변동성을 증폭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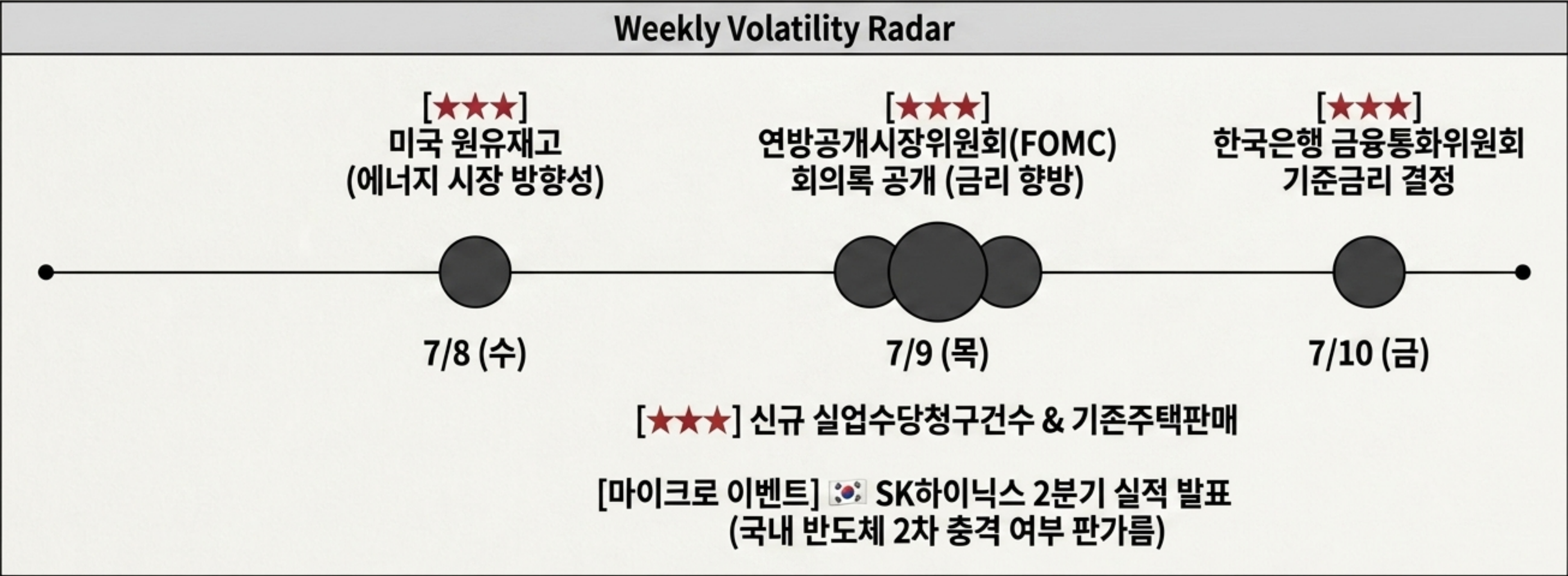
붕괴의 해부학: 왜 사상 최대 실적이 폭락을 불렀는가?



BOTTOM LINE

KOSPI의 7% 급락은 한국 고유의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글로벌 AI 밸류에이션 재조정에 따른 거대한 '자본 이동(Capital Rotation)'의 희생양이다.

주간 캘린더: 변동성 촉매제 타임라인 (7/7 ~ 7/10)



Context Tag	중간중간 애틀랜타 연은 GDPnow, 중국 CPI/PPI 지표 발표 대기.
-------------	---

핵심 관전 포인트 및 결론

	반도체 투심의 붕괴 (The Micro Risk)
	외국인 투매와 삼성·하이닉스 하락 주도로 단기적인 KOSPI·KOSDAQ 추가 하방 압력 상존. 실적보다 수급이 지배하는 장세.
	AI 로테이션과 다우의 부상 (The Macro Shift)
	스페이스X 나스닥100 편입 등 특정 촉매제에 자금이 쏠리며, 초과수익을 노린 자금이 AI에서 전통 다우 종목(가치/민감주)으로 순환매 중.
	변동성의 뇌관 (The Forward Look)
	7월 9일 FOMC 회의록 공개 직전까지 10년물 금리 상승, 달러 약세, 유가 및 비트코인 등 매크로 자산의 산발적 변동성이 극대화될 구간. 보수적 접근 필요.